

소셜 미디어에 대한 윤리적 요청의 필요성

박근서 대구가톨릭대학교언론광고학부 교수

I. 서론

1996년 장정일의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가 출판되었다. 출판당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제재 권고가 있었고, 다음 달 출판사 간부가 연행되었다. 출판사 관계자의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지만,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10개월의 형이 선고되었다.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나긴 했지만, 죄는 인정되었던 것이다. 이후 법정 공방은 계속되었고, 2000년 대법원은 유죄를 확정지었다.

2001년 김인규 교사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누드를 게시했다는 이유로 심각한 논란에 휩싸인다. 예술가로서 그는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홈페이지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은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으므로, 홈페이지를 폐쇄하거나 혹은 교사직을 포기하라는 요구했다.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된 김인규 교사 사건은 2005년 대법원의 ‘일부유죄 판결로 일단락된다.

2010년 개그맨 김미화는 자신의 트위터에 KBS에 소위 블랙리스트가 존재할지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KBS는 김미화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2010년 6월 14일 조선비즈(biz.chosun.com)에 “트위터 너마저... 음란물 전파통로로 전락”이라는 손혜정 기자의 기사가 실렸다. 손혜정 기사는 기사에서 “음란물 유포는 점점 지능화되는데, 이를 막을 정부의 대책은 느리기만해 답답합니다.”라고 썼다. 같은 해 MBC PD 수첩은 김종

익씨와 관련해 정부의 일반인 사찰에 관한 내용을 방송했다. 김종익씨는 대통령을 비하하는 게시물을 자신의 블로그에 링크한 적이 있었다.

90년대 중반 이후 미디어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부의 개입에 관련해서 논란이 되었던 대표적 사건을 나열해보았다. 장정일의 소설, 김인규의 홈페이지, 김미화의 트위터, 김종익의 블로그, 미디어는 각각 다르고 문제의 성격 역시 상이하지만 모두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문제였다. 장정일과 김인규의 예술적 표현의 문제나 김미화와 김종익의 정치적 문제제기 혹은 의사표명 등은 모두 넓은 의미에서 자신의 사상과 견해를 표현할 자유를 행사한 일이었다. 문제는 그러한 자유가 사회적 합의에 따라 무작정 무한정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자유는 누려야 하지만 그것이 공동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가치를 사이에 두고 이를衡量하는 것은 아마 이러한 문제의 핵심이며 가장 중요한 기술이 될 것이다.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지 않는 공동체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 공동체의 가치에 거스르지 않고 개인의 자유를 마음껏 펼칠 수 있다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할 리 없겠지만, 상반된 두 가지 가치의 대립과 모순은 필연적이고 현실적이다. 이미 오랜 시간 묵혀온 논의지만, 묵힌 시간만큼 ‘해결 이 가까워졌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 이 논의는 현실적으로 종결되지 못한다. 사회적이며 역사적인 조건과 상황을 고려해 ‘최적점’을 찾는 것이 오히려 생산적이다.

90년대 중반 인터넷의 상업적 이용이 허가된 이래 네트워크는 우리 삶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전시켜 왔다. 이러한 변화는 한편으로 기존의 일방적이며 획일적인 소통 채널을 일신하고 보다 자유롭고 평등한 의사소통 공간을 제공하리라는 기대를 얻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첨단 정보테크놀로지를 통한 막대한 규모의 데이터 수집을 놓고 새로운 감시사회의 등장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대두되었다. 발로우가 사이버스페이스 선언문을 통해 역설한 새로운 삶의 공간과 그 가치에 대한 주장은 어떠한 면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통제

와 권력의 작용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했다.

확실히 인터넷은 기존의 미디어 개념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대상이다. 그것은 통상의 미디어들과는 구분되는, 오히려 유선, 무선의 개념과 같이 미디어의 기술적 문화적 기반에 가깝다. 그것은 특정한 콘텐츠를 실어나르도록 특화된 채널이나 기술적 도구가 아니라, 우리 삶의 새로운 방식이며 그것을 얻어 놓을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이다. 더구나 날로 진보하는 정보통신 기술에 힘입어 그것의 규모와 영향력 그리고 가치는 하루하루 더욱 커지고 있다. 웹 2.0의 대두는 인터넷의 기술적 진보와 문화적 진전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상징이다. 참여, 공유, 개방이라는 가치를 기치삼아 인류의 삶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이념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유력한 미디어로 떠오르고 있는 '소셜 미디어'는 가장 주목받는 논의의 주제가 되고 있다. 140자의 단문으로 의사를 주고받는 트위터, 사용자 개인의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공시하기보다는 타인과의 네트워크에 중점을 두고 쌍방향성을 대폭 강화한 페이스북은 특히 2009년 불어닥친 아이폰 열풍에 힘입어 빠르게 사용자를 늘려나갔다. 특히 '트위터'는 2010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커다란 주목을 받으면서 그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개그맨 김미화의 KBS 블랙리스트 관련 발언이나 조선택비즈 기사 파문 그리고 최근의 트위터 엽기녀 논란은 트위터의 가능성이 조화로운 합의에 따라 평화롭게 펼쳐지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국내에서는 아직 뚜렷한 이슈나 사건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논란은 페이스북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페이스북을 통해 이메일을 해킹하고 컴퓨터에 저장된 사진 등으로 상대방을 협박한 혐의로 체포된 미국 남성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된 사건이나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매춘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끊임없는 의혹제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역사는 진전하고 미디어 또한 진전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미디어가 출현할 것이고 또 그와 관련한 논란들이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같다고 해도

한 같을 순 없다. 문제는 우리는 늘 새로운 환경 속에 처해 있으며, 그것은 어제와는 다른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 이는 새로운 미디어에 요구되는 가치에 낡은 미디어에 요구되던 그것을 복사해 넣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 글의 목적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우리의 문화적 지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통해 이에 대한 규범적이며 윤리적인 요청의 필요성을 논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단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무작정한 생각에서 그러자는 것이 아니다. 낡은 부대라도 충분히 견딜 수 있다면 나름 쓸모를 찾을 수 있다. 문제는 낡은 부대가 충분히 쓸만한 것이냐는 점이다. 새로운 미디어와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우려'가 반복된다. 미디어와 관련된 콘텐츠의 진보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데, 규범적 차원의 '우려'는 여전히 낡은 버전으로 남아 있다. 어쩌면 '우려' 자체가 낡아서 쓸모없게 되어 버린 부대인지도 모른다.

II. 소셜 미디어, 새로운 의사소통 환경



소셜 미디어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구성한다. 이는 기존의 인터넷 기반 매체들이 지니고 있었던 가능성을 새로운 국면으로 진전시켰다. 기존의 인터넷 공동체가 '공동체'에 초점을 두는 폐쇄적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면, 소셜 미디어는 사용자 개인에 초점을 둔 개방적이며 보다 사적인 형태의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인터넷 동호회는 특정한 관심사를 놓고 사람들이 모여들어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했다. 그러므로 인터넷 동호회는 그것을 지탱하는데 필요한 '관심의 대상'에 따라 상대적으로 폐쇄적이거나 위계서열적인 구조를 가질 수 있었다.

인터넷 동호회와 같은 기존의 웹 공동체는 단일한 관심사를 중심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소

“새로운 미디어와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우려’가 반복된다. 미디어와 관련 콘텐츠의 진보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데, 규범적 차원의 ‘우려’는 여전히 낡은 버전으로 남아있다.”

통하는 ‘장소’였다. 기본적으로 공동체는 모든 구성원의 평등한 지위와 권리를 바탕으로 하지만, 그것의 실제적 운영과 관리는 필연적으로 권위와 정보의 불평형한 분배를 낳았다. 대부분의 동호회에서 기본적인 조건이 되어 버린 ‘실명인증’이나 일반회원과 정회원 그리고 관리자 등급의 구분 등의 관행은 이러한 불평형성의 근거가 된다.

뿐만 아니라 특정한 관심에 따라 사람들이 모여든 까닭으로 애초부터 보유 정보에 차이가 있었으며 이러한 정보의 차이는 소통을 통해 평형화(leveling)되기보다 공동체의 권위가 일부 회원에게 집중되어 그 격차를 더욱 벌여놓게 되었다. 그러므로 인터넷 공동체의 상당수는 애초와는 다르게 폐쇄적이며 위계서열적인 구성상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폐쇄성과 위계서열적 수직구조는 신규 회원에게는 일종의 진입장벽이다. 따라서 이들과 다수는 공동체의 핵심에 접근해 인적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공동체의 가치를 공유하기 보다는 단기적으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 불량회원이 될 수밖에 없었다.¹⁾

반면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새로운 인터넷 기반 솔루션은 이와는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네트워킹한다. 즉 ‘객관적’ 관심을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자기를 중심으로 네트워킹할 사람을 엮음으로 기존 공동체에서와 같은 정보와 권위의 불평형적 분배나 신입회원이 느끼는 진입장벽 등은 애초

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소셜 미디어는 사용자 개인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하나의 인적 관계의 네트워크로서 오프라인에서의 관계가 지닌 시공간적 한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존 인터넷 공동체와 소셜 미디어의 인적 관계의 형성 원리상의 차이는 PC 통신의 구성모델과 인터넷의 구성모델의 차이와 일치한다. 메인프레임에서 콘텐츠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단지 콘텐츠 제공 요청을 하거나 혹은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권한이 없었던 PC 통신의 구성상은 기존 인터넷 공동체의 구성상과 비슷한 중앙집중형인 반면, 소셜 미디어의 구성상은 인터넷의 구성상인 네트워크상을 갖는다. 이러한 형태적 차이는 한편으로 소셜 미디어가 인터넷의 구성상과 일치하는 그러므로 그것의 기술적 가능성을 보다 극대화한 형태임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인터넷은 컴퓨터와 컴퓨터의 분산적 네트워크이며, 소셜 미디어는 이러한 컴퓨터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이기 때문이다.

박성철(2009)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이 기존의 의사소통 방식에서 진일보한 새로운 양식이라고 보고 그 단점과 장점을 요약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인터넷은 규칙에 대한 순응도가 떨어져 규범이 유명무실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인터넷에서는 송수신자간의 관계 형성 없이도 메시지를 교환할 수 있고, 메시지 전송의 과정과 통로 또한 표정이나 몸짓 등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을 배제함으로써 소통의 실체성이 약하므로 관계 관리의 당위성이 무시되거나 경시되기 때문이다. 즉 상대를 배려하거나 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해야 할 필요를 느낄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인터넷은 제한적으로나마 소통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권리와 참여 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정보 독점을 막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가능케 하는 장점이 있다(박성철 2009:

1) 이기적 불량회원이란 공동체의 ‘무임승차자’에 해당한다. 무임승차자는 인터넷 공동체의 입장에서 매우 미묘하고 까다로운 문젯거리다. 왜냐하면 무임승차자는 최소한 발화의 청중으로서의 역할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공동체의 중심과 다소 거리가 있고 이들과 강한 연대를 유지하고 있지 못하다고 해서 이들을 공동체 밖으로 내몰 수는 없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공동체의 공적이며 보편적인 성격은 심하게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박성철의 인터넷에 대한 논의는 한편으로는 여기서 문제 삼고 있는 소셜 미디어의 경우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소셜 미디어는 인터넷이 윤리적인 차원에서 가장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익명성'을 무작정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성철의 논의는 인터넷을 '익명적 매체'라고 규정하는 한에서만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소셜 미디어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관계에 따라 묶인 사람들이 형성한 소규모 네트워크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관계의 맺고 끊음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이러한 이유로 소통의 실체성이 약하다는 주장은 소셜 미디어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소셜 미디어는 그 자체로 실제적 관계에 기반한 인터넷 서비스이다. 적어도 발화의 상황에서 혹은 최초의 메시지 게시 상황에서 소셜 미디어의 조건은 단순히 익명적이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의 중요성이 곧 규범의 준수 혹은 규칙의 순응으로 연결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는 관계의 중요성이 규범으로 연결되는 수준과 소셜 미디어에서의 관계가 관철되는 네트워크의 수준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즉 소셜 미디어는 인터넷의 익명적 공동체와 달리 상대적으로 긴밀한 사회적 관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규범 또한 상이한 수준에 있다는 것이다. 익명적 공동체에서 '실명'은 추상수준이 높은 보편적 규범을 관철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인 반면, 소셜 미디어에서의 '실명'은 관계의 깊이를 나타내는 징표가 된다. 따라서 동호회와 같은 통상의 인터넷 공동체에 적용되던 규칙과 규범을 소셜 미디어의 공동체 혹은 네트워크에 단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소셜 미디어에 의해 형성된 네트워크는 상대적으로 사적 성격이 강할 뿐 아니라, 성원들 간의 정서적 유대나 상호 이해의 폭이 기존 인터넷

공동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물론 소셜 미디어는 단순한 사적 공간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네트워크와 소셜 미디어 서비스의 특성상 메시지가 공적으로 유포되거나 공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사적이며 동시에 공적인 양면성을 지닌다. 더구나 인터넷이라는 기반적 기술 조건은 사적 메시지의 공적 발화를 전대미문의 속도와 범위로 전파하는 위력을 발휘한다. 소셜 미디어에서 게시물이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어떻게 해석되어 전달될지를 가늠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소셜 미디어의 전달 범위는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그룹 혹은 강한 연대의 네트워크는 물론 그로부터 몇 차례 건너 뛰어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약한 연대의 네트워크 그룹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통제와 개입은 더욱 미묘하고 어려운 문제이다(이동훈·유정호 200: 167-8).

어떠한 면에서 소셜 미디어는 네트워크 위에 구축된 구비적 공간 혹은 음성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구비적 공간에서 일정 범위의 사람들은 발화자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다. 그리고 발화자의 목소리를 들은 가까운 거리의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한다. 반복의 과정에서 변형과 변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발화의 맥락이 달라짐으로써 해석을 위한 단서들이 변경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는 가운데 최초의 발화는 발화자가 통제할 수 있는 공동체의 범위를 넘어서 대중적이며 일반적인 차원으로 전파된다. 이러한 과정은 소셜 미디어에도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임재해(2006)는 이야기판의 구연공동체와 인터넷의 사이버공동체 사이의 유사점을 나열하며 사이버공동체의 구비성을 주장한다.²⁾ 인터넷은 어떠한 측면에서 구비적 소통 상황에 평등한 관계와 극단적인 속도

2) 임재해는 두 공동체의 특징을 다음 여섯가지로 비교한다(임재해 2006 1-76). 첫째 구연공동체와 사이버공동체는 현실세계와 가상세계가 서로 소통하며 순환한다는 점에서 동질적이다. 둘째 구연공동체가 '뮌뮌(numα)효과'로 이야기의 자유를 획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이버공동체는 '기면효과'를 통해 자유를 구가한다 셋째 구연공동체는 대면적 관계에 기반하는 까닭에 나이, 성별, 신분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나, 사이버공동체는 전혀 차별이 없다 넷째 두 공동체는 모두 약한 연대와 강한 연대라는 두 가지 경향을 지닌다. 다섯째 사이버 공동체에서는 복제에 의한 텍스트의 횡적 합성이 이루어지는 반면 구연공동체에서는 기억과 구연에 의한 종적 합성이 이루어진다. 여섯째, 효율적이며 비용이 적게 들고, 인정욕망을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두 공동체는 비슷하다.

“소셜 미디어는 이전의 인터넷 미디어 혹은 공동체와 구분되는 윤리적 혹은 규범적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 즉 ‘익명성’에 의해 가면을 쓰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던 기존의 인터넷 미디어들과는 다르게, 소셜 미디어는 적어도 네트워크 상위 위치로서 혹은 그 자리로 호명된 이름으로 사용자를 규정함으로써 이미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규범과 규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와 범위를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는 인터넷이 구비적 소통이 장구한 시간을 통해 설화를 전승하고 신화와 전설을 형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의 일을 순식간에 이루어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특히 소셜 미디어는 기존의 인터넷 공동체가 지니고 있었던 익명성에서 벗어나 유사면대면 상황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더욱 구비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전형적인 구비적 소통 상황이 기억에 의존했던 까닭에 그 메시지의 변이와 변형이 익명적이었던 반면, 소셜 미디어에서는 메시지의 완벽한 복제가 가능한 까닭에 그것의 변이와 변형이 기록으로 남는다. 구연공동체는 소통의 결과는 남기지만 구체적인 소통의 역사를 망각하는 데 반해, 소셜 미디어는 양자모두를 기억한다. 이 점에서 소셜 미디어는 이전의 인터넷 미디어 혹은 공동체와 구분되는 윤리적 혹은 규범적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 즉 ‘익명성’에 의해 가면을 쓰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던 기존의 인터넷 미디어들과는 다르게, 소셜 미디어는 적어도 네트워크 상위 위치로서 혹은 그 자리로 호명된 이름으로 사용자를 규정함으로써 이미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규범과 규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높은 수준의 규범과 규칙이 적용되는 범위가 메시지가 전달되는 최종 범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소셜 미디어의 통제 가능한 범위는 최초의 메시지 전달 범위 혹은 직접적인 메시지 전달 범위에 해당하며, 그 바깥은 최초 발화자가 통제할 수 없는 공동체의 바깥이다. 소셜 미디어의 공동체가 사적인 관

계에 의해 형성된 비교적 단단한 네트워크라고 한다면 공동체의 바깥은 이 네트워크와 느슨하게 연결된 통제 불능의 영역이다. 물론 소셜 미디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은 이러한 공동체 바깥의 영역이 될 것이다. 소셜 미디어의 메시지가 공적 발화가 되는 지점 또한 메시지가 공동체의 바깥으로 전파되는 순간이다.

Ⅲ. 사회적 자본과 인정 욕망



소셜 미디어는 기존의 정보 중심 공동체와는 다르게 인적 연결망 자체를 가장 중심에 두는 서비스다. 즉 기존의 인터넷 공동체가 최소한의 콘텐츠 혹은 그것의 기본적인 원칙과 구성원리를 전제했던 반면 소셜 미디어는 기본적으로 콘텐츠의 특정성 혹은 제한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네트워크 자체가 ‘콘텐츠’가 되는 서비스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차원에서 그리고 심층심리적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사회적 차원이라 함은 소셜 서비스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의를 말하고, 심층심리적 차원은 소셜 서비스를 욕망하는 인간 심리의 기저에 대한 논의에 해당한다.

소셜 미디어가 제공하는 네트워크는 상호간의 신뢰와 호혜에 근거하여 서로를 엮고 있는 일종의 ‘사회적 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Putnam 1993; Bourdieu 1984). 퍼트남은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인간관계에 내재하는 규범, 신뢰, 네트워크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그는 사회적 자본이 구성원들에게 공유된 행동 규범과 공통적 문화 정체성을 부여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소셜 미디어는 퍼트남의 개념을 통해 보자면, 개인의 친분과 신뢰를 통해 구축된 사적 네트워크로서 조직화 수준이 낮고 공유된 규범과 가치에 의한 강제가 약한 반면, 비공식 채널임에도 높은 신뢰성을 유지하고 활발한 상호작용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며 의사결정의 단위를 집단화함으로써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영역이다. 어떠한 면

에서 소셜미디어는 그 자체가 사회적 자본일 뿐 아니라,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 이 될 수 있다.

한편 부르디외의 '사회적 자본'은 지배의 관철이 단 순히 경제적 생산수단의 장악에서 비롯하는 것이 아니 라, 다양한 수준의 자원들을 통해 복합적으로 구성된다 는 점을 설명해 준다. 즉 자본의 지배는 문화적 상징의 독 점과 그들 사이의 공고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은 권력의 인적 네트워크 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특별한 방법과 자원을 통해 형성 된다. 부르디외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기여하는 가장 전형적 메커니즘을 교육에서 찾고 있다.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만, 소위 '학벌'로 대표되는 교육에 의한 사회적 자본의 형 성이 가장 뚜렷한 현상이다.

'소셜 미디어'는 부르디외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이를 관리하는 미디어라 할 수 있다. 트 위터의 팔로워와 팔로잉 개념이나 페이스북의 친구 개 념은 자신의 사회적 자본을 관리함은 물론 자신과 관계 를 맺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인적 네 트워크를 무한히 확장할 수 있는 현실적 솔루션을 제공 한다. 이는 애초 부르디외가 언급했던 사회적 자본의 양 상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 왜냐하면 소셜 미디어를 통 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은 적어도 교육제도만큼의 폐쇄 성이나 경제적 자본이나 문화적 자본과 같은 다른 자본 과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이는 소셜 미 디어를 통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지배집단에 독점될 수 없으며, 따라서 대항적 사회적 자본을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적 자본'의 개념은 소셜 미디어가 지닌 사회적 기능 혹은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다. 퍼트남의 사회를 건 전하게 유지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사회적 자본'의 개념이나 한 사회에서 지배력을 행사하 고 권력을 재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의 한 형태로서 의 '사회적 자본'의 개념 모두 소셜 미디어가 어떤 사회 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다. 신뢰를 회

복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능적 수단으로 보든가 혹은 대안적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사회적 자본의 구성 수단으로 보든가 관계없이 소셜 미디어는 특정한 사회 적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소셜 미디어가 사용자를 흡인하는 중요한 이유 는 위에서 언급한 사회학적 필요에서 뿐 아니라 심층심리 적인 차원에서 또한 설명 가능하다. 라캉의 주장에 따르 면 인간은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구성할 능력이 없다 (Lacan 1977). 왜냐하면 인간의 정체성이란 스스로에서 비롯하는 즉자적이며 직각적인 느낌이나 감각이 아니기 때문이다.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로서 인간의 정체성은 무엇보다 언어와 기호를 통해 구성된다. 라캉은 언어와 기호를 통해 구성된 나머지들을 가리켜 '환상'이라 부른다. 환상은 강력한 이미지로 사람들의 삶에 적잖은 영향을 미 치지만 공식적이며 사회적인 삶에 있어서는 주변적이거나 부차적인 영역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 아 정체성을 구성하기 위해 상징과 기호를 끌어 모은다.

상징과 기호는 인간의 바깥에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자기 이름은 타자에게 불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상징과 기호를 갖는다는 것은 결국 타자에게 그러한 상징과 기호 로 불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인간의 조건이다. 인간 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타자로부터 의 부르심'인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 욕망은 기본적으로 인정 욕망 이다. 타자가 나를 나로 인정해 주는 한에서 정체성은 확립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에게 정체성을 부여할 다수의 자원, 즉 자기를 인정하는 타자 의 수를 늘려 나가고자 한다. 이것이 인간이 다른 사람과 관계하고 자신의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가장 큰 이유다.

라캉은 이상적 자아와 자아 이상을 구분하는데, 그에 따르면 이상적 자아는 인간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자아상을 말하며 자아 이상은 타자를 통해 자기를 보는 따라서 자신의 향한다. 타자의 시선을 말한다. 이상적 자아 와 자아 이상은 일치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선 인간의 사회적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상적 자아라기보다는 자아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떠한 면에서 자아 이상을 규범적으로 내면화한 것이 이상

“사적 공동체의 수준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확장되는 단계에서 소셜 미디어에서의 발화는 더 이상 사담이 아닌 공적 발화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공적 발화의 성격과 그에 대한 책임 추궁의 논리가 그다지 정당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적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 정체성이란 스스로 확립되거나 자연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타자를 통해 형성하기 때문이다.

소셜 미디어는 이러한 점에서 가장 손쉽고 효율적인 방법을 준다. 페이스북 북의 친구 리스트나 트위터가 제공하는 팔로워와 팔로잉 리스트는 타자의 타자, 타자의 타자의 타자까지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자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트위터의 팔로잉 숫자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 숫자는 자기 정체성을 가시화하고 이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숫자에 연연함은 관계의 ‘물신화’를 드러내는 징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물신화와 그로부터 비롯하는 소외 이전에 관계의 결핍을 메우고 이를 가시화함으로써 충족의 효과를 발생하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소셜 미디어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의 관리의 사회적 필요뿐 아니라 자기 정체감의 유지와 그를 통한 심리적 만족에도 영향을 준다. 특히 산업사회 이후 공동체의 급격한 해체는 한편으로 개인을 얼굴 없는 존재들로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 국민, 소비자 등과 같이 산업사회의 대량 생산 체제에나 걸맞은 거대 이미지를 부여하였다. 하지만 개인의 얼굴은 유일한 얼굴이다. 유일함은 곧 개인의 정체성과 맞닿은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신의 유일한 얼굴을 타자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모순된 욕망을 갖는다. 이러한 욕망이 모순된다는 것은 얼굴의 유일성이 오직 타자에 의존해서만 확립되기 때문이다. 유일함은 그 자체의 실체성에서 비롯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가 아님을 통해서만 부정적으로 확립된다. 그러므로 유일성과 개체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욕

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네트워크와 공동체에 대한 욕망 또한 강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셜 미디어는 얼굴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해결책이다.

IV. 소셜 미디어의 개입 지점



소셜 미디어는 사적인 공동체 네트워크에서 출발하지만 그 영향의 범위는 이러한 사적영역을 벗어난다. 소셜 미디어 상의 한 개인은 그와 관계를 맺고 있는 타자들에게 의해 특정한 지점 혹은 위치로 표시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네트워크는 또한 다른 네트워크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의 위치로 표시될 수 있다. 이는 소셜 미디어가 단순히 사적인 공동체일 수 없는 까닭이다. 비록 그것이 사적 관계에서 출발한 작은 공동체였다고는 해도, 그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와 관계 속에서 사회적으로 정의되는 한보다 넓은 범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소셜 미디어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이곳이다. 사적 공동체의 수준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확장되는 단계에서 소셜 미디어에서의 발화는 더 이상 사담이 아닌 공적 발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공적 발화의 성격과 그에 대한 책임 추궁의 논리가 그다지 정당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사적 공동체라고는 해도 그 발화의 범위가 사회적 수준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전제로 통상의 공적 발화에 대한 통제 기제를 단순히 적용해서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발화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놓고 사적 공동체에서의 발언을 통제하는 것은 소위 ‘막걸리 보안법’의 논리와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소셜 미디어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사회적으로 통제하고 이를 정당화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될 수 없다. 어떠한 면에서 소셜 미디어에 대한 내용적 통제는 그 자체가 어떠한 정당성도 확보하기 어렵다.

예로 들면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는

트위터에 대한 규제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히 저해할 비방·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이를 삭제 혹은 삭제 권고하거나 해당 계정을 차단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제재 방침의 근거로 트위터는 일종의 전자메일이므로 선거법 93조 1항에 의거 단속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트위터는 불특정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전자 메일과 달리 메시지 교환을 요청한 경우에만 소통이 가능한 사적 대화에 가깝다는 점에서 이러한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러므로 선관위의 제재 방침에 대해 우선순위에 도로 교통법을 적용하는 것과 같다는 비판이나 전화통화도 단속하고 술집에서의 대화도 단속하겠다는 것과 같다는 비난은 당연한 결과였다(조희정 2010: 38-9).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소셜 미디어에 대한 공적 제도를 통한 통제는 그 자체가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는 듯하다. 영향력의 범위가 넓기는 하지만 성격상 사적 네트워크에 해당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공동체 바깥이라고는 해도 다른 사람을 통해 간접적으로는 엮여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 본성상 사적 대화의 채널로서 자유로운 발화를 전제로 한 서비스를 공적 권력의 개입과 법률적 제재를 통해 통제한다는 것은 분명 과잉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소셜 미디어에 공적 책임을 필요 이상으로 요구할 경우, 그것은 자체의 정체성을 잃고 좌초할 가능성이 크다. 어떠한 의미에서 소셜 미디어를 통한 발화 내용을 문제 삼아 이를 제재하는 것은 소셜 미디어 자체를 부정하고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소셜 미디어에 대한 통제는 제도적이며 공식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비공식적이며 사적인 차원에서 작동하는 윤리적 통제 기제에 따라야 한다. 물론 여기에서 윤리적 통제는 기존 미디어에 적용되었던 차원에서 벗어나 변화된 소통환경에 맞게 새로운 수준으로 상승해야 한다. 통제라는 말 자체의 어감이나 이미지가 그렇기는 하지만, 소셜 서비스를 작용점으로 하는 윤리적 개입은 ‘제재’, ‘금지’, ‘억제’ 등과 같은 부정적 작동 원리로 움직여선 곤란하다. 인터넷이 그렇고 인터넷의 기

“소셜 미디어에 대한 통제는 제도적이며 공식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비공식적이며 사적인 차원에서 작동하는 윤리적 통제 기제에 따라야 한다. 물론 여기에서 윤리적 통제는 기존 미디어에 적용되었던 차원에서 벗어나 변화된 소통환경에 맞게 새로운 수준으로 상승해야 한다”

술적 구성상을 인적 구성상으로 전환한 소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탈중심, 평등, 자유, 참여, 공유, 개방과 같은 적극적 가치를 구현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주어진 미디어가 특정 가치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반드시 그 가치에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치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면, 이를 거부할 명분은 더더욱 없다.

소셜 미디어의 공동체가 갖는 이미지는 들뢰즈와 가타리의 ‘리즘’과 겹쳐진다. 리즘은 탈중심화된 공동체 구성 방식으로 권위와 권력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따라서 개인의 잠재력을 고양함으로써 집단적 잠재력이 실현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한다. 가타리는 네그리(1995)와 함께 건강한 공동체의 건설은 독특한 개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독특한 개성이야말로 공동체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개성이란 개인에게 아무런 억압도 없는 즉 개인이 자유롭게 될 때에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이는 위로부터 주어진 규칙과 규율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삶의 조직하고 그로부터 자기를 생산적으로 고양함으로써 가능한 일이다(가타리·네그리 1995: 35).

가타리와 네그리의 주장에 있어 핵심은 공동체의 요구가 개인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는 데 있다. 개인의 잠재성을 실현하는 것이 공동체의 잠재력을 구현하는 길이 되도록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는 바람직한 공동체의 길이며 동시에 개인이 원하는 삶의 가치이기도 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소셜 미디어를 통한 소통은 또한 개인의 가능성을 확장함으로써 집단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길에 있어야 한다. 이는 소셜 미디

어에 대한 윤리적 개입이 단순한 금지와 제재의 명령이 아니라, 자기 삶을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구성하는 실천의 논리 혹은 행위의 기술이라는 차원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암시한다(박근서 2005).

소셜 미디어에 대한 윤리적 원칙의 구성은 그러므로 이를 이용하는 방법과 기술을 적시한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칸트 식의 정언적 명법과 유사하게 제시되었으나 내용적으로는 행위를 규정하거나 명령하지 않는 하나의 제안으로 주어질 것이다. 이는 우선 박근서에 의해 제시된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행위 원칙으로서의 '성찰'과 '배려'를 따라야 할 것이지만, 소통의 구체적 상황과 수준에 따라 대략 여섯 범주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소통의 구체적 상황을 구분하는 여섯 범주란 아콕슨(1989)이 제시한 소통의 모델에 근거한 것이다. 이는 이미 박성철(2009)이 수사적인 차원에서 제시한 바 있으나, 여기에서는 성찰과 배려의 원칙이 작동해야 하는 소통의 여러 지점 혹은 국면들로 원용하고자 한다.

우선 커뮤니케이션 맥락이 고려되어야 한다. 맥락은 커뮤니케이션 상황의 당사자들을 그들 밖에 있는 세계와 연결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건전한 소통은 공동체의 가치와 더불어 그것의 실재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졌더라도 사실과 다르거나 혹은 공동체 바깥의 가치와 심하게 대립한다면 이는 제고의 여지를 갖는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맥락은 발화자와 그의 공동체가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로부터 보다 건전한 소통을 생산하기 위한 우선적 고려 대상이다.

둘째, 발화자의 입장에서 자기표현의 자유와 의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자신의 발화가 어떠한 억압이나 강제에 의해 왜곡되거나 변형된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발화의 결과에 대해 책임질 의사와 의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물론 모든 발화를 의식적으로 확인하고 성찰할 수는 없다. 일상적 수준에서의 발화는 대개 버릇과 같이 특정한 패턴으로 반복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이들 발화가 결국 자기표현의 매체이며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

면, 발화자는 자기 이미지와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셋째, 청자의 입장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청자의 상황에 대한 배려이며, 결과적으로는 소통의 품질 혹은 상호이해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건이다. 소셜 미디어는 근본적으로 청자와의 관계에 근거한 것이며,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고 진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한 윤리적 고려의 지점이다. 청자의 입장에 대한 고려는 우선 청자와 소통할 수 있는 코드와 상징의 선택으로부터 그를 네트워킹된 다수 존재의 평균치로 추상화하지 않고 실제적 관계 속의 익숙한 얼굴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소통할 수 있는 관계 자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는 아콕슨이 의사소통의 친교적 기능(pathtic function)이라고 부른 것과 관계가 있다. 소통은 메시지 자체에 특별한 의미가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관계를 확인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다. 이는 소통이 일방적으로 주도되거나 관계의 맺고 끊음이 자의적으로 결정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암시한다. 특별한 의미가 없더라도 소통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별 의미 없는 소통 또한 관계 유지에 중요하므로 아무렇게나 해서는 곤란하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섯째, 코드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소통의 채널이 되고 있는 소셜 미디어 자체에 대해 사유하고 그 논리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소통 채널에 대한 논의는 효율적 소통의 전제가 되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사회적·문화적 가능성을 실현하는 문제와도 밀접히 관련된다. 소셜 미디어는 기본적으로 웹 2.0의 가치에 충실한 매체로서 참여, 공유, 개방의 원칙이 관철되는 한에서 그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동체의 운영과 관계 맺기의 원칙을 이러한 원칙에 근거해 되 새겨 볼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메시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메시지는 의미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 자체의 형태와 구성에 관련된다. 의미를 전달하는 것에 치중하기보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경우, 이러한 구체적

표현 형태 자체가 그것의 의미보다 더욱 의미가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는 의사의 전달과 더불어 그것을 전달하는 그릇이 되는 표현과 형식의 중요성을 부각한다. 표현과 형식은 그 자체로 일종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자의 메시지를 특정한 방식으로 왜곡하거나 변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섯 범주에서 혹은 국면에서 성찰과 배려의 원칙이 소셜 미디어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행위를 규제하는 통제와 논리가 아니라, 행위를 구성하며 실천을 유인하는 긍정적이며 생산적인 '방법'이 되어야 한다.

V 결론 : 소셜 미디어에 대한 윤리적 요청



앞에서 살펴보았다시피 소셜 미디어에 윤리를 요청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 아니다. 윤리, 적어도 인터넷과 사이버스페이스 이후의 윤리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금지의 명령이어서는 곤란하다. 행위의 생산을 목표하고 구체적 실천을 유인하기 위한 기술과 방법으로서 이 시대의 윤리는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소셜 미디어는 기존의 미디어들과는 다른 어떠한 측면에서 그것의 물리적 기반인 인터넷의 가능성에 더욱 가까이 다가선 기술적 대안을 제시한다. 소셜 미디어에 의해 구축된 공동체는 기존의 인터넷 공동체와 비교할 때 리즘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할 뿐 아니라, 그것이 전하는 자유와 평등 참여와 연대를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한다.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발화와 실천에서 비롯된 소셜 미디어의 관계 맺기는 그러나 어느 선에서 가까운 네트워크 공동체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적 영향을 행사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경계 지점에서 통제와 제재의 논리가 들어선다.

하지만 소셜 미디어는 그 자체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구분하기 애매할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사적 미디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적 제재와 제도적

통제는 정당성을 획득하기 쉽지 않다. 소셜 미디어에 대한 공적 제재의 명령들은 개인의 입장에서 지나치게 과할 뿐 아니라, 수행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소셜 미디어에 대한 통제,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거브너스는 공적 채널과 제도적 방법을 통한 부정적 효과가 아니라 사적 채널과 비공식적 방법을 통한 긍정적 효과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소셜 미디어가 법과 제도가 아니라 윤리와 규범을 요청한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는 대목이다.

새로운 미디어는 늘 새로운 규제와 새로운 통제를 낳는다. 이는 늘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우려'에서 비롯하기 일쑤였다. 우리는 그러나 대개 우려에서 그친다. 하지만 그 우려가 행위와 실천을 억압하고 공동체와 네트워크를 위축한다면 이제 그쳐야 할 것은 이 대책 없는 '우려'다. 우려가 우려로 끝나는 것은 분명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최선은 아니다. 최선은 우리가 없는 자유, 우려로부터 억압되지 않는 실천이다. 소셜 미디어에 대한 윤리적 요청은 그러므로 이에 대한 규범적 제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대한 제도적 통제와 공식적 제재에 맞서기 위한 적극적 대안이다.

<참고문헌>

- 김기타리 · 네그리 (1995) 조한경 역, 자유의 새로운 공간. 갈무리.
- 박근서 (2005) 유령의 윤리 또는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윤리적 개입.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성철 (2009) 네트켓과 현실공간 커뮤니케이션 규범의 대비연구. 『수사학』, 11권, 323-361
- 아콕스, 로만 (1989) 신문수 역. 문학속의 언어학. 문학과 지성사.
- 이동훈 · 류정호 (2009) 인터넷 선거 캠페인 관련 개인미디어 규제법률의 문제점 연구: 공론장적 접근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6권 3호, 159-198
- 임재해 (2006) 사이버공동체의 소통양식과 실화 전송양상의 재인식. 『구미문화연구』, 22권, 1-78.
- 조관중 (1998) 인터넷 기술혁신과정의 지배조정기제. 1998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논문집, 237-9.
- 조희정 (2010) SNS를 통한 정치적 표현행위에 대한 규제의 개선 방향. 『언론중재』, 2010년 여름호, 30-43
- Bourdieu, P. (1984). tr. Richard, Nice.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Harvard Univ. Press.
- Lacan, J. (1977). ed. Jacques-Alain Miller, tr. Alan Sheridan. *The Four Fundamental Concepts of Psychoanalysis*. W. W. Norton.
- Putnam, R.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 Press.